

# 〈진공 이야기〉 창간 경축사

백총렬 | 한국진공기술연구조합 이사장

2014년 갑오년이 시작된 지 엿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싹트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진공학회의 뜻 깊은 소식지인 〈진공 이야기〉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근간 진공학회 학술대회에 최대 인원이 등록하였고, 국제화에 발 맞춘 〈ASCT〉영문 논문집을 정식 발간하시는 것에 대해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IVC 국제진공컨퍼런스 한국개최가 한국진공학회의 지금까지 괄목할만한 성장과 앞으로의 기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진공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젊은 학생들과 연구원들의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는 대학뿐만 아니라 뒤쳐져 있는 진공산업의 발전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진공학회의 각 연구활동을 통한 축적된 응용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진공산업이 이렇듯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각계 각분야에 녹아있는 한국진공학회의 학문적인 이론과 축

적된 노하우가 아니었다면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4년 2월 3일에 저는 7대 한국진공기술연구조합의 이사장 직에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진공학회와 한국진공기술연구조합은 앞으로 더욱 혼연일체가 되어 진공산업 전 분야에 걸쳐 상부상조하는 두 기관이 되기를 바라며, 금번 발간하는 〈진공 이야기〉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걸쳐 뿌리깊게 뻗어나감으로써 진공기술이 모든 과학기술과 첨단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Fundamental 기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차세대 먹거리 창출과 과학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하는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길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진공연구조합 또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와 소신 있는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진공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저자 약력〉

백총렬 박사는 1991년 일본 동북대학 재료물성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일본진공기술(ULVAC) 초재료연구소에 입사하였고,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를 거쳐서 2000년 한국알박(ULVAC)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006년 4대 이사장, 2011년 6대 이사장, 2014년 7대 한국진공기술연구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choong-ryul\_paik@ulvac.com)